

도야마 번 제2대 번주 마에다 마사토시 동상

도야마의 약 이름을 떨치게 한 영주

마에다 마사토시 1649년-1706년 【번주 재임: 1674~1706】

도야마 번의 초대 번주인 아버지 도시쓰구의 뒤를 이어 제2대 번주로서 문무의 진흥을 이루었으며, 논밭 개간과 산업 육성 등 번의 내실화에 힘썼습니다. 또한 마사토시는 옛 화폐 수집가라는 문화인으로서의 면모도 알려져 있습니다. 마사토시는 도야마의 제약 판매업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도 유명하며, 그것이 「반혼단전설」이라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

겐로쿠 3년(1690), 마사토시가 에도성에 올랐을 때 어느 지방 영주가 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. 마사토시가 항상 지니고 다닌 '반혼단'을 권하자 즉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. 즉각적인 효과를 목격한 여러 영주들은 '반혼단'의 효능에 놀라 자신들의 영내에서 판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이에 마사토시의 명령으로 각 지방에서 행상을 하게 된 것이 도야마 약 판매의 시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 덕분에 마사토시는 '도야마의 약을 널리 보급시킨 영주'로 지금까지도 시민들 사이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.

마사토시 동상은 쇼와 29년(1954)에 세워졌습니다. 원형은 사사키 타이주, 주조는 다카오카 추게샤(高岡鋳芸社)가 맡았으며, 반침돌을 합쳐 높이 약 10m에 이릅니다.

도야마시